**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매주일 15시 예배,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ㆍ매일성경 7,8월호 받아가세요.**

**ㆍ뒤메나라 모임:** 6월 23일(목) 20시. 다른 나라 식구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어린이연합여름성경학교:** 6월 27일(월), 28일(화) 10시-17시, 쾰른한빛교회

주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강사: 정희경 목사

**ㆍ청소년연합수련회 JC캠프:** 7월 1일(금) 17시, 2일(토) 09-20:30시, 회비 30유로

주제: Grenzenlos.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강사: 민기도, 박보도, 이광열 목사

**ㆍ귀가:** 신일수/정보현-김혜경

**ㆍ생일:** 박성호, 박성자, 백윤정, 신형만, 석혜진, 한정우, 김주영

**ㆍ담임목사:** 다음 주일 브레멘언약교회 설교. 우리교회 설교-김요한 목사

**\*\* 함께 기도합시다 \*\***

1)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

2)모이기에 힘써,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3)코로나19를 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5)공의와 평화의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삼상26:13-25 월/삼상27:1-28:2 화/삼상28:3-25 수/삼상29:1-11

목/삼상30:1-20 금/삼상30:21-31 토/삼상31:1-13 일/시편82:1-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8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6월 19일** | **6월 26일** | | **7월 3일** | **7월 10일** |
| **예배기도** | 석호선 | 한명일 | | 단주현 | 민명희 |
| **말씀일기** | 박희영 | 한상철 | | X | 서민규 |
| **안내위원** | 예배부 | | | | |
| **헌금위원** | 김종권 이재완 | | 김영희 김아영 | | |

**39-25호 2022년 6월 19일**



**“서로 위로하라”**(살전4:18)

주일예배 12:3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2:30 Teestube

청소년부 12:3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4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  |
| ※찬송/Gemeindelied ……….......................….…… 2장 ……...................................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42번 ……………...............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393장 ……….………………..……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 | | 석호선 집사  박희영 집사  서민규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12:10-13:4 ………………….…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흔들리며 가는 인생** ……...............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397장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삼상25장 '어리석음과 성급함 사이에 핀 꽃'◀**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어리석은 나발, 분을 참지 못하고 성급히 칼을 찬 다윗, 그 사이에 핀 지혜의 꽃 아비가일.

물론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남편의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그런 아내는 아니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소위 남편을 잡아 먹은 여인일 수 있다.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아내, 나쁜 아내이다.

솔직히 내가 소설을 좀 써 보자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성급한 무력 보복도 막고, 미련한 남편의 마음까지도 돌려 놓아, 이후로 다윗을 크게 돕는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으면 어떨까 싶다.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가 마치 남편 죽게 만들고 자신은 곧 다른 남자 따라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글쎄, 내가 전쟁터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너무 고상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아비가일이 행한 일은 1차적으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남편을 구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남편이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와 공포로 버럭하다가 화병으로 죽었던 것 같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성급히 칼을 휘두르려던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필요한 물질도 얻고 덤으로 지혜로운 아내까지 얻게 되었으니, 참, 되는 분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나 보다^^.

이러쿵 저러쿵 아비가일의 지혜와 용기를 논하기에는 내 안에 나발의 어리석음과 다윗의 성급함이 너무 크다. 은혜를 잊지 말고, 있을 때 잘 해야 한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나를 향한 기대는 높이되, 사람들을 향한 기대는 낮춰야 한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요2:24).